

## 경이로운 호주!



오는 4월 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의 콘래드 호텔에서 '호주의 메이크업과 스킨케어'에 관해 집중 조명하는 좌담회가 열린다. 에라 페레즈 내추럴 코스메틱, 인스킨 코스메틱, 나폴레옹 페르디, 셀프케어 코퍼레이션의 여러 주요 전문가들이 모이는 좌담회로 놓치지 말아야 할 좋은 기회이다.

프랑스-호주 산업 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몇 년간의 하락을 딛고 현재 호주 뷰티 분야의 총 매출액은 378,000,000 유로(945,000,000 호주달러:약 7조 7,437 억원)에 이른다. 프리미엄 뷰티뉴스(Premium Beautynew)에 최근 소개되었던 기사는 호주가 전 세계 경제의 12 등을 차지하고 있음을 환기시켰다. 프랑스-호주 산업 상공회의소가 출간한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호주는 전세계에서 가장 상승한 구매력(1인당 60000uss)을 자랑한다. 호주는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으로부터의 수준 높은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는데, 당연히 뷰티 제품도 포함한다. 인구 2천만으로 시장은 작지만, 확실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다. 게다가 인터넷을 통한 아시아 시장과의 접근도를 통해 소규모 로컬 메이커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바이오》 제품

호주 뷰티 시장의 총 매출액은 6,378,000,000유로(945,000,000호주달러 : 약 7조7,437억원)에 이른다.

특히 <<바이오>>는 진정 <<메이드 인 오스트랄리아>> 제품의 강점 중 하나로 수출 시장을 정복하는 로컬 선봉부대이다. 모든 조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호주 메이커인 셀프케어 코퍼레이션, 나폴레옹 페르디스, 에레 페레즈, 인스킨 코스메틱 등의 업체가 이룬 성과는 이 시장의 역동성을 증명한다. 에레 페레즈의 브랜드 총괄 책임자인 히람 마르티네즈는, <<우리는 연간 20%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강조한다. 또한 스킨케어 제품생산의 독보적 전문가인 셀프케어 코퍼레이션의 소니아 아모로소는(총매출 40 000000 달러), <<간단해요. 나는 몇 달 전부터 휴가를 거의 못 갔어요. 주문이 너무 많아서요!>>라고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 호주 시장 쪽으로 다시 전략을 수정한 나폴레옹 페르디스는 875개의 대리점을 보유하며, 데이비드 존스와 마이어는 85개의 직영점을 쉬지 않고 돌리고 있다.

### 럭셔리 선두주자!

일반적으로, 럭셔리 분야는 전례 없는 경제적 역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미 2012년에 세계 총 매출 중 약 2100억 유로에 달했으며, 이중 1/4이 프랑스의 럭셔리 산업에 의해 발생되었다.

이러한 리더의 위치는 럭셔리 모든 분야의 판매 중 예외적인 발전을 통해 확인된다. 아시아로부터 오는 외국 관광객의 증가와 그들의 럭셔리 제품애의 성향이 이 분야의 증가를 떠받친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관광객들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시드니에서 지난 몇 년간 이 나라에 정착한 아시아인의 수를 확인하면 놀라울 정도이다.

### << 호주 스페셜 >> 좌담회 4월 6일 오전 10시

이 좌담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새로 떠오르는 시장, 호주 >>라는 주제로 뷰티월드 컨넥션의 샤를-엠마누엘 구노와 뷰팀의 유틱 선이 주재하며, 에라 페레즈 내추럴 코스메틱의 CEO 인 에레 페레즈, 인스킨 코스메틱 창립자이자 CEO 인 마리 에나-코치올로네, 나폴레옹 페르디 CEO 인 나폴레옹 페르디, 셀프케어 코퍼레이션 CEO 인 소니아 마모로소가 참여한다.

